



문재민  
'포럼 광주' 발족  
부인 매주 광주로



안철수  
팬클럽 13개 활동  
광주내일포럼 준비



이재명  
촛불 집회 참석  
호남 집중 공략



박원순  
팬클럽·목포 방문  
2주 연속 호남행



손학규  
'손사모' 등 팬클럽  
호남에 공 들이기



안희정  
수시로 호남 찾아  
지지 세력 구축



천정배  
'자구구국 포럼'  
지지 세력 확장



김부겸  
'새 희망 포럼'에  
지역 인사들 합류

## “호남 잡아야 뜬다” 대선 잠룡들 쟁걸음

朴 탄핵안 가결·빨라진 대선 정국... '호남 공략' 전력

반기문 '반딧불이' 구축... 유승민·남경필도 잇단 강연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선 잠룡들의 '호남 공략'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지지하는 야권 대표주자가 뚜렷하지 않는데다, 호남 출향민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표심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차기 대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야권 주자들은 '文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반문(反文) 정서가 강한 '호남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25일 지역정거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 130여명이 최근 '포럼 광주'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기존 지지단체인 '시민의 힘' 등과 함께 세를 넓히는 강화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씨는 4개월째 매주 광주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도 지지 세력을 넓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시민네트워크 무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팬클럽 12~13개가 현재 활동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지지세력으로 활동했던 진심 포럼 세력을 다시 규합한 '광주 내일 포럼'을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4일 진도 팽목항과 목포 동부시장,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여수와 순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17일 1박2일 일정의 광주 방문에 이어 2주 연속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 측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지지 그룹이 광주·전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전국 조직인 '희망 새 물결'과 광주·전남 지역에 '희망포럼'이 활동 중이다. 박석민·박홍수 전 전남도의원 등이 지역에서 조직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찌감치 호남을 집중 공략했다. 이 시장은 지난 달 25~26일에 이어 이달 19일 강연과 촛불집회 참석,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 등 광주·전남에서 10여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점에 고무돼 지지세력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후보론을 앞세우고 대선 도전을 고민 중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2년간 강진에서 집거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전국 조직인 동아시아미래재단과 동아시아미래재단 광주·전남지부를 중심으로, 손사모(손학규를 사랑하는 모임), '민심 산악회' 등 팬클럽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기존의 전국 조직인 '새희망 포럼'에 광주·전남지역의 자발적인 인사들을 합류시키는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23일 전주 방문에 이어 오는 28일 광주를 찾는 등 수시로 호남을 찾으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안 지사는 최근 광주·전남 일부 진성당원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도전을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도 전국 시·도 조직을 구축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딧불이' 외에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 등도 내년에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잇따라



소환되는 '국정농단 3인방'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됐다(위). 김중 전 차관(아래 왼쪽), 정호성 전 비서관도 25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 연합뉴스

광주를 찾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광주에서 5·18모임 참배와 전남대 특강을 하고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남 지사는 지난달 17일 장성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단체인 'KR(코리아리빙)포럼' 강연에 참석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최악 AI... 닭·오리 살처분 전남, 100만 마리 넘었다

시·군 보상 재정부담도 '쑥쑥'

계란값 폭등... 제과점 등도 비상

전남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살처분 닭·오리가 100만 마리를 넘었다. 나주 반남과 진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고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나 AI 확진 농장도 11곳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감염되면서 전체 살처분 가금류가 2500만 마리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계란 가격이 폭등해 미국 등 외국산 계란이 식탁에 올려지고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사와 산란을 감소로 지난 22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종오리농장과 진도군 의심면 종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H5N6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됐다.

나주는 전국 최대 오리산지로 반남면 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영암 신북면과 시흥면을 포함한 14개 농가 56만

3000마리(닭 46만2000마리, 오리 10만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진도군 의심면 종오리농장 인근에는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없어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5000마리만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AI는 나주 6건, 해남·무안·장성·구례·진도 1건씩 등 모두 11건이다.

살처분 규모는 57 농가 114만4000마리로 증가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2014년 살처분 규모인 125 농가, 285만7000마리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25일 현재 전남도내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추정치)는 80억원이다.

연도별 전남지역 AI 발생 건수는 2011년 23건, 2014년 68건, 2015년 39건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0시 전국적으로 현재 AI 여파로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515 농가, 2548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마리 중 7마리 이상이 닭이다.

살처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 전남 각 시·군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특검, 주내 청와대 압수수색

朴 뇌물수수 규명 중대 고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금명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성탄절인 25일에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24일에는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 씨와 김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도

같은 날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드로 꼽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곧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자음생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